

골짜기나 숨겨진 은신처를 찾았고, 그러다가 마치 굴속으로  
 들어가듯 마을을 떠나 은둔할 생각에 이곳 바위산으로 향  
 했지. 최대한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가능한 외따로  
 떨어져 가장 삭막한 곳에 몸을 숨기려는 것은 심성이 여리  
 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본능일세. 마치 저 바위들이 불운을 막아주는 방벽이 되어  
 주리라는 듯이, 마치 자연 속 정적이 영혼을 잠식한 불행의  
 풍파를 누그러뜨려줄 수 있다는 듯이 말이야. 허나 신은,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행복 외에는 바라는 것  
 이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의 가호를 내려주시니, 라 투르 부  
 인에게 한 가지 행복으로 마련해주신 것은 부도 명예도 주  
 지 못하는 것, 바로 친구였네.

그곳에는 일 년 전부터 생기 넘치고 착하고 정 많은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 이름은 마르그리트였네. 브르타뉴의  
 어디 농사짓는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랐  
 으니, 결혼을 약속했던 어느 이웃 귀족의 사랑을 믿고 몸을  
 버릴 정도로 유약하지만 않았어도, 가족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었을 테지. 허나 그 귀족은 제 욕정이 채워지자 그녀를  
 멀리했고, 자기가 임신을 시킨 아이의 살길을 보장해주는  
 것조차 거부했다네. 그때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을 영  
 영 떠나버리기로 결심했고,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식  
 민지로 가서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로 했지. 가난하더라도  
 정직한 처녀로서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지참금인 평판까지